

일본 기업의 해외 M&A 가속화 특성 및 영향 분석

2012. 5. 29

지역 · 경제연구센터
유지호

posco
포스코경영연구소

Executive Summary

일본 기업의 해외 M&A 가속화 특징 및 영향 분석

□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M&A 거래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

- 2011년 일본 기업의 해외 M&A 거래 건수는 629건으로 금액으로는 687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. 제조업 부문이 전체 M&A의 절반 이상 기여
-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일본 대지진 이후 엔고, 전력 부족 등으로 일본 내 산업 기반 약화가 주요 원인

□ 금융위기 이후, 신흥시장 진출 확대, 철강 등 중간재 산업의 해외 M&A 가속화가 주요 특징

- 일본의 신흥시장 해외 M&A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대(對)중국 해외 M&A가 대(對)미국 해외 M&A 거래 건수를 처음으로 초과
-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한 최종재 산업의 해외진출로 중간재 산업 해외 M&A가 전(全)산업 평균 증가율(32%)보다 큰 폭 증가
 - * 철강(115%), 조립금속(126%), 건설자재(130%)
- 특히, 한·중 철강사가 원료선 해외 M&A에 집중한 데 반해 일본 철강사는 동남아, 서남아 해외 철강사 M&A에 집중

□ 향후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화 지속 시 향후 신흥시장을 둘러싼 한·일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

- 주요 일본 기업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신흥시장 개척, M&A 등 기업 글로벌화에 역량 집중을 계획
- 최종재 및 중간재 산업들의 패키지 해외진출 성향은 일본 기업의 신흥국 현지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- 앞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환경은 수출 경쟁관계에서 신흥국 현지 생산·판매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대될 전망

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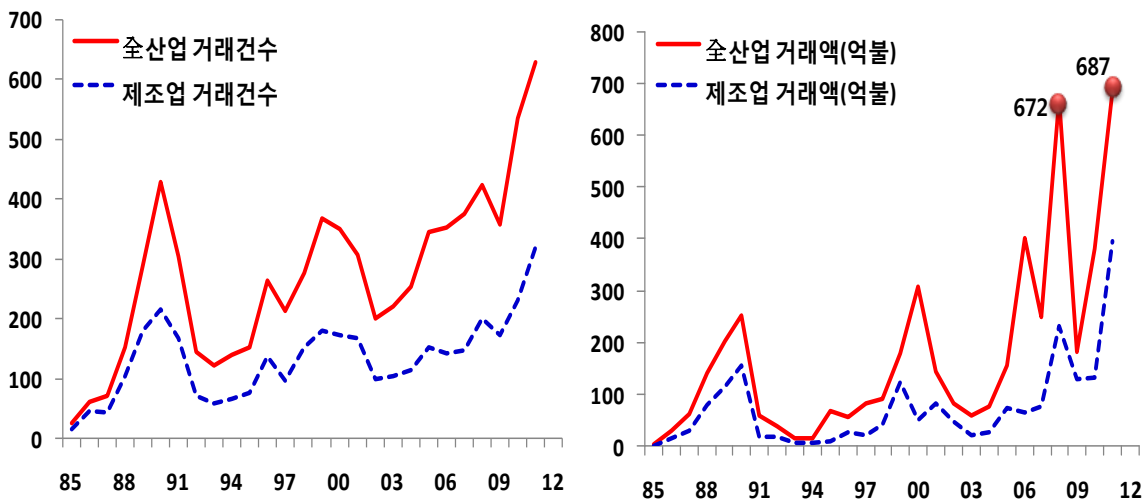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일본 기업의 해외 M&A 현황 및 배경	1
II. 일본 기업의 해외 M&A 주요 특징	3
III. 종합 및 시사점	5
[별첨]	7

I. 일본 기업의 해외 M&A 현황 및 배경

□ 일본 제조업의 해외 진출 가속화로 해외 M&A 거래규모 사상 최대

-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M&A 건수는 2010년 대비 17.6% 증가한 629건, 금액으로는 2010년 대비 79.6% 상승한 687억 달러 규모
- 2011년 일본 제조업의 해외 M&A(건수: 320건, 금액: 396억 달러)는 전체 해외 M&A 규모의 50% 상회



자료: 톰슨로이터

<그림 1> 일본 기업 해외 M&A 거래 건수 및 거래액

□ 금융위기 및 대지진 충격이 해외 M&A 급증의 주요 원인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과 보수적 기업 운영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
 - 유로존 문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되면서 엔화 강세로 인한 한·중 경쟁사 대비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

- 금융위기 이후, 해외 M&A 거래규모와 엔화강세 간 연관성 강화
 - 상관계수: 위기 전(前) 0.46 ⇒ 위기 후(後) -0.81
 - 위기 이후, 엔-달러 환율 1엔 하락 시 해외 M&A는 1.7건 상승

- 또한 금융위기 직후 일본 기업들이 비핵심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에 나섬으로써 기업 내 풍부한 현금자산을 축적

※ 지난해 말 기준, 일본 상장 기업들은 약 60조엔 규모의 현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(日經, 2012. 4. 4)

○ 일본 동북 대지진 이후, **Supply-Chain** 및 전력수급 불안이 대두되면서 **부품 공급망의 지리적 분산과 전력비용 상승에 대비하려는 의도**

- 토요타 자동차 등은 부품소재 생산거점을 지리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요지에 가까운 지산지소(地産地消) 전략을 추진

※ 자국 내 생산거점을 두었던 HOYA(싱가포르), 미쓰이금속(말레이시아), NOK(태국·중국)는 해외로 거점을 이전

- 도쿄원전 사태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공급 부족과 대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 리스크에 직면

※ 2012년 1월 원전 54기 중 51기의 가동을 중단, 일부 원전 재가동시에도 화력발전 비중 증가로 전력요금은 약 19.4% 인상될 전망

□ **엔고 지속과 정책지원 확대로 일본의 해외 M&A는 지속될 전망**

○ 유럽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기불안으로 미국은 2014년까지 초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글로벌 달러 약세 불가피

- 노무라 연구소, 미국 경기불안 및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 시 엔고 예상
- 올 4월 JFE는 엔화 강세 가능성이 고려된 2015년 중기계획안 발표

○ **일본 정부, 기업 대상 해외 M&A 지원을 강화할 계획**

- 작년 10월, 엔고 타개책으로 달러융자 한도를 10조 엔으로 확충해 이를 해외 M&A 및 자원 확보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
- 대(對)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출을 전략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개별투자상담, 현지조사 지원, 개별 자문 등을 지원

II. 일본 기업의 해외 M&A의 주요 특징

- 위기 이후*, 일본 기업의 해외 M&A는 남반구의 원자재, 서북반구의 기술, 동북반구의 생산·판매 등 3개 축으로 전개

* 금융위기 전: 2006년~2008년, 금융위기 후: 2009년~2011년

- (원자재) 철광석, 비철금속, 농축산물은 남반구의 중남미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
 - 중남미(구리, 철광석, 농축산물), 오세아니아(주석, 원료탄), 아프리카(원유, 가스)
- (기술) 항공, 가스 인프라, 정밀기계, 제약 등 차세대·첨단 분야는 유럽과 북미 등 서북반구 지역을 통해 추진
- (생산·판매) 자동차, 기계, 전기/전자 분야는 아시아, 구소련 지역 등 동북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
 - 동북아(전기/전자, 자동차부품), 동남아(조선, 건설), 서남아(기계, 철강), 구소련(자동차)

□ 일본 산업의 신흥국 진출 본격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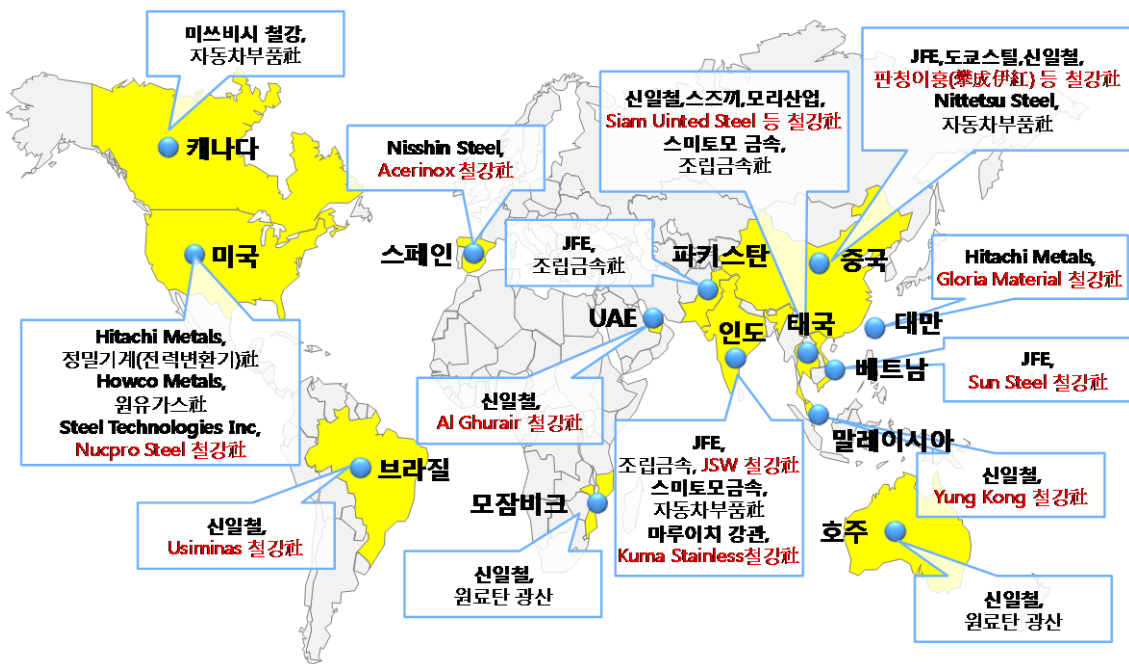
- 위기 전후, 중국 등 신흥국 해외 M&A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
 - 신흥국 지역 해외 M&A 거래 건수는 위기 전 408건에서 위기 후 705건으로 73% 증가해 큰 폭 상승한 데 반해 선진국 해외 M&A 거래 건수는 744건에서 817건으로 10%의 소폭 증가
 - 지난해 중국 기업(홍콩 포함)에 대한 해외 M&A 거래 건수(114건)가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거래 건수(113건)를 초과
- 자동차 등 소비재산업 해외진출 가시화로 철강 등 소재·중간재 산업의 해외 M&A도 빠른 증가세
 - 위기 이후, 자동차산업은 신흥국 현지수요 확보를 목적으로 진출
 - 위기 전후: 대(對)신흥국 12건→17건, 대(對)중국 5건→9건
 - 완성차업체 투자 흐름과 맞춰 주요 부품사들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
 - 위기 전후: 대(對)신흥국 8건→25건, 대(對)중국 2건→7건, 대(對)인도 3건→9건

- 건설자재, 철강, 조립금속 등 중간재 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산업 평균 해외 M&A 증가율(32%)을 상회
 - 위기 전후, 건설자재(92%, 25건), 철강(150%, 30건), 조립금속(175%, 22건) 산업은 전산업 평균 해외 M&A 증가율(32%)을 크게 상회

□ 일본 철강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또한 빠르게 추진 중

○ 철강, 신흥국 지역 M&A 거래 건수가 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

- 일본 철강사의 해외 M&A 건수(총 30건) 중 신흥국 지역 비중이 80%
 - 철강사의 대(對)신흥국 M&A: 위기 전 8건 → 위기 후 24건
- 특히 중국, 인도, 동남아 등 아시아 전반에 수평적 M&A(철강사 간 해외 M&A)가 위기 전 6건에서 위기 후 19건으로 증가
 - 위기 전후 아시아 지역 수평적 M&A: 中 1→4건, 印 0→4건, 태국 1→3건, 기타(말레이시아, 베트남, 대만, UAE) 1→5건으로 증가
- 신일철, JFE, 스미토모금속 등 철강 3사 해외 M&A도 위기 이후 4.7배 증가(총 14건)
 - JFE, 차량용 철강공급 목적으로 印 JSW스틸 지분 인수(2010년 7월)
 - 신일철, UAE Alghurair 제철 지분 20% 인수 계획 발표(2011년 11월)



<그림 2> 위기 이후, 일본 주요 철강사의 해외 M&A 현황

- 위기 전후, 일본 철강사 해외 M&A는 한·중 보다 투자 증가 폭이 크고 동남아 및 서남아 시장에 집중되는 특징
 - 위기 전후 거래 건수는 한국(67% 증가), 중국(89% 증가)보다 높은 150% 증가율 기록
 - 진출 지역도 동아시아 및 서남아 지역에 70% 집중. 중국은 호주 및 중남미 진출 비중이 53% 차지
 - 진출 산업 분야도 중국 및 한국은 원자재 분야에 집중된 것에 반해 일본은 해외 철강사 M&A에 집중

기 간	일본	중국	한국
전 기간(1985 년~2011 년)	128 건	86 건	45 건
위기 전(2006 년~2008 년)	12 건	19 건	12 건
위기 후(2009 년~2011 년)	30 건	36 건	20 건

<표 1> 한·중·일 철강사 해외 M&A 거래 건수 비교

- 자국 중심 생산 구조 한계로 신흥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
 - 엔고로 소재 및 중간재 공급의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제2의 내수시장을 찾아 나선 결과

Ⅲ. 종합 및 시사점

- 일본 기업들은 내수중심 전략을 오랜 기간 구사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영을 통해 신흥시장에서 타개책을 찾고자 노력
-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신흥시장 개척, M&A, 해외 인재 영입 등 기업 글로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표
 - 신일철,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 및 글로벌 생산 판매 체제 강화를 추진
 - JFE, 경영자원을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방침 하에 기존 투자규모를 25% 증액(1조엔)하여 인도 및 베트남 일관제철소 건설에 투자할 계획

CEO	기업(업종)	2012년 언론사 인터뷰
 쿠바 레츠오	코세라 (전기/전자)	"신흥국 진출을 통해 본 사업과 브랜드를 확대"
 무라타 에이지	JFE (철강)	"아시아 현지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."
 도요타 아키오	토요타 (자동차)	"우리의 과제는 신흥국에 맞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?"

□ 패키지 형태의 산업 진출은 현지 경영에 뿌리 내리는 계기로 작용

- 대지진 이후 일본 고유의 공급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이 노출됨으로써 해외 진출에 보수적이었던 기업 경영진 시각이 변화
- 중간재 산업의 해외진출은 현지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
 - 일본 철강산업은 소규모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M&A하여 상하공정 간 균형을 달성하고 현지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1980년대 엔고 상황에서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의 현지 경영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계기로 작용

□ 향후 일본의 해외 진출은 신흥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생산/판매 네트워크 선점을 둘러싼 한·일 간 경쟁을 가속화 시킬 전망

- 과거 철강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는 존재했으나, 현지 투자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없었음. 앞으로 현지 생산량이 크게 늘면 고객사를 두고 현지에서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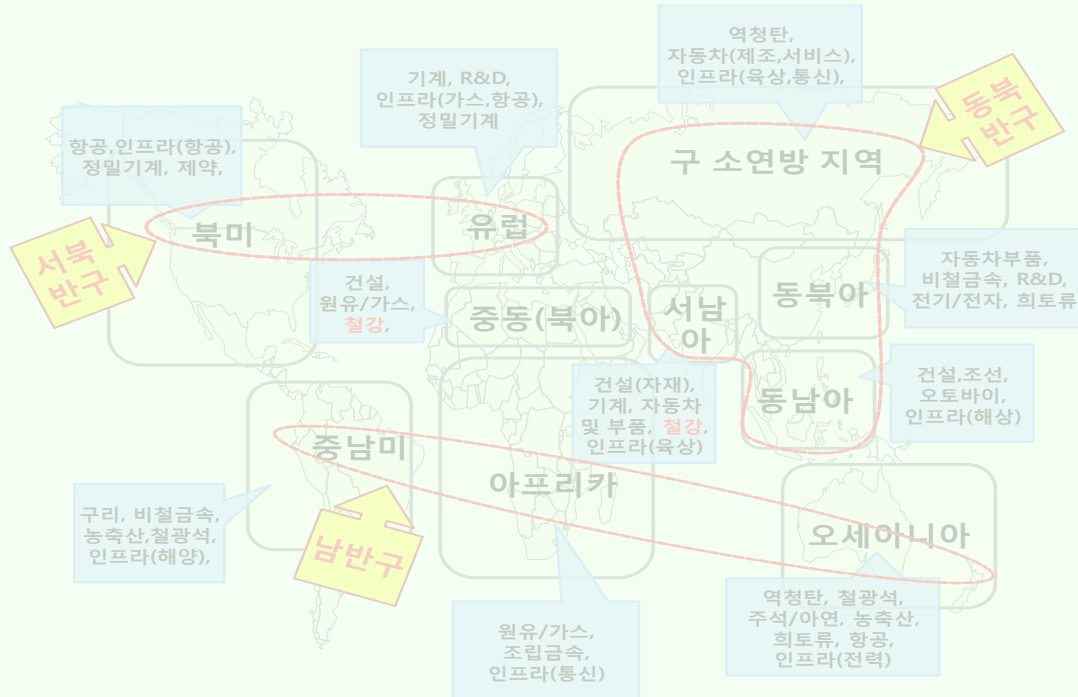
유지호 (e-mail: kitanjiho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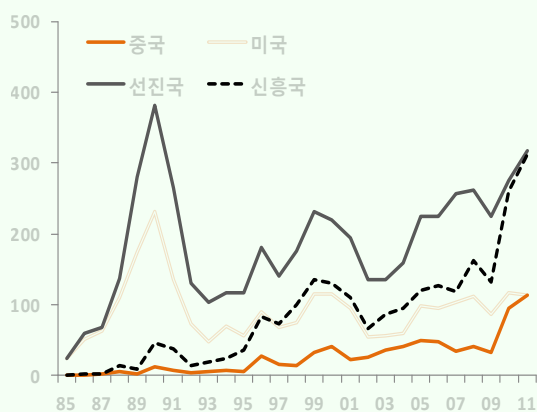
[별첨 1] 금융위기 이후, 일본 기업의 해외 M&A의 주요 3대 축

- 각 지역별 특화 산업 선정은 입지상계수(Location Quotient Method)로 산출

$$-LQ = (J \text{ 지역 } I \text{ 업종}) / (J \text{ 지역 전업종}) / (\text{전체지역 } I \text{ 업종}) / (\text{전체지역 전업종})$$



[별첨 2] 국가·지역별 해외 M&A 거래 건수



주 : IMF 지역분류 기준

